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9.14~2016.9.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8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주)조계종출판사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중국 격변기서 바라본 〈금강경〉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강미농 지음 | 양관 옮김 | 담앤북스 펴냄
5만 8천원





'신해행증' 기준 내용 구분 해설
한글자마다의 꼼꼼한 해석 돋보여
올바른 믿음 바탕한 수행법 제시

〈금강반야바라밀경〉(약칭 금강경)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전이다. 워낙 유명한데다 다른 경전에 비해 분량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읽는다. 그러나 그 뜻을 바르게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글자 수는 적지만 글자 하나 하나에 담긴 뜻이 워낙 심오해서다. 〈금강경〉에 대한 고승 대덕들의 주소(註疏)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기존 해설서들은 대부분 소명 태자의 32분을 따르는 반면 강미농 거사〈사진〉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관점으로 내용을 분류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요하리만치 꼼꼼히 해석한다. 감히 '불교 대백과'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는 물론 주요 경전과 논서를 아우르며 〈금강경〉의 참뜻을 밝힌다. 총 1,116쪽의 방대한 분량,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해석과 독보적인 논리가 기존 해설서들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미농 거사가 경장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던 데는 좋은 계기가 있었다. 사서를 맡고 있는 경사도서관에 소장된 돈황석실사경 8천여 권의 교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맡은 것이다. 이후 강 거사는 지인들과 불교 단체를 설립, 대승경전 강의와 염불 예참 지도에 힘썼다. 이 책은 그가 1934년 여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로 보인다.

첫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해설한 것이다. 기존 〈금강경〉 강설이나 해설서는 대부분 소명 태자의 32분을 따른다. 강 거사는 화엄종의 달천 법사가 쓴 〈신안소〉에 의지해 '신해행증'으로 경을 과판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서는 경의 제목과 역자인 구마라집을 소개한다. 2부서 5부까지는 믿음 · 이해 · 수행 · 증득(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설한다. 전반부인 2부와 3부서는 경계의 측면서 '머무름 없음(無住)'의 바른 뜻을 밝힌다. 이를 통해 반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반부인 4부와 5부서는 마음의 측면서 '머무름 없음'의 이치를 밝힌다. 이를 통해 바른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둘째, 대승불교의 주요 종파와 경전, 논서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인다. 부처님이 전한 '반야'의 진리를 바로 알리기 위해 강 거사는 대승불교의 모든 종파와 경전을 아우른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공과 유식 사상은 물론 천태종 · 화엄종 · 정토종 · 선종 · 밀종의 관점을 두루 접목해 해설한다. 또한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과 같은 주요 경전은 물론 〈대승기신론〉 〈금강경신소〉등 주요 논서의 내용을 주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유가, 도가의 사상과도 비교해 〈금강경〉의 면면을 자세히 살핀다.

셋째,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설명이다. 강 거사는 당나라 사본을 기준으로 주요 〈금강경〉 판본들과 해설서 등을 비교 검토해 당시 유통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은 인물로 유명하다. 강 거사의 설명대로라면 우리나라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도 빼야 할 글자가 여럿이다. 예를 들면, 제13분의 '시명반야바라밀(是名般若波羅蜜)' '불가이삼십이상 득견여래(不可以三十二相 得見如來)' 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강 거사는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글자는 다 깊은 뜻이 있다. 결코 중복된 것이 없다"며 자주 반복된 글자라도 전후 맥락을 따져 그 의미를 상세히 밝힌다. 범고농 거사가 서문서도 밝혔듯이 "다른 사람들은 경에 나오는 여래(如來), 불(佛), 세존(世尊), 불야(不也), 불고수보리(佛告須菩提) 등을 소홀히 했으나 거사는 번번이 그 수승한 뜻을 밝혔다." 또한 얼핏 읽으면 같은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의미가 다른 말들, 이를테면 제2분에서는 '발심(發心)'이라고 하고 제10분에 이르러서는 '생심(生心)'이라고 하는 이유, 제4분에 나오는 '부주(不住)'와 '무주(無住)'의 차이 등도 상세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강 거사는 책의 곳곳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 거사가 권하는 주요 수행은 염불이다. 기복을 바라는 염불이 아니라 '반야'를 바탕으로 한 염불이다.

이 책을 번역한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양관 스님은 "〈금강경〉속에 담긴 참뜻과 차이를 낱낱이 파헤칠 뿐만 아니라 수행과 부처님의 일상 가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강미농은?

1900년대 초반, 중국 격변기 불교 연구과 포교에 온몸을 던진 수행자다. 1872년 강소성에서 태어난 강 거사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다. 평생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고 한다. 1902년 31세 때 향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무렵 아버지의 운명으로 세상사 무상함을 깨닫고 불교 공부에 정진했다. 1918년에는 정식으로 불문에 귀의, 선종의 대덕 미군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보살계를 받았다. 1930년대 초반, 강 거사는 지인들과 불교 단체인 '성심연사'를 결성, 사장으로 추대돼 대승경전을 강의하고 염불 예참을 지도했다. 1934년 여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금강경〉을 강의했으며,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하던중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수 67세였다.

효봉 대선사 수행 역정과 일대기 소설로

붓다가 된 엿장수

이정범 지음 | 동쪽나라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역임한 효봉 대종사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펴낸 책이다. 올해로 열반 50주기를 앞두고 있어 생전의 효봉 큰스님이 남긴 발자취와 그가 추구했던 사상을 널리 선양하려는 취지가 돋보인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효봉 스님 관련 저술과 에세이,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두루 섭렵하고 생전에 효봉 스님을 직접 시봉한 스님과 불자들의 회고담을 취재하며 3년여 동안 원고를 썼다. 그런 과정서 기존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말해 소설이란 형식을 갖췄으면서도 개항기, 일제강점기, 6 · 25 전쟁, 근대화 시기 등 효봉 선사가 살던 시기의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 일상을 적절히 배치해 효봉과 당대의 고승들이 실현하던 이념과 시대적 한계 등을 입체적이며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1888년, 평안남도 양덕군서 출생한 효봉 스님은 부유한 집안 환경을 배경으로 비교적 유복한 성장기를 보냈다. 평양고보,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 졸업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관이 된 그는 평양복심법원에 재직 중 한 독립군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뒤 심한 양심의 가책과 가치관의 혼동을 느낀 채 가출을 하고 만다. 이후 서울 남대문서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엿장수가 된 그는 3년 동안 한강이남 지역을 유랑걸식하며 참회와 하심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다가 홀연히 금강산 신계사서 당시 '금강산 도인'으로 추앙받던 석두 선사에게 출가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서른여덟, 늦깎이인 그의 수행은 생사를 걸 만큼 치열했다. 깔고 앉은 방석에 엉덩이 살이 들러붙어 진물이 흐를 정도의 지독한 수행으로 '절구통 수좌'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깨달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여긴 효봉 스님은 끝내 금강산 법기암 주변에 출입문 없는 토굴을 만들고는 스스로 유폐됐다. 그때부터 참선 수행에 매진하던 효봉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엿장수로부터 깨달은 이가 된 효봉 스님은 은사 석두 선사뿐 아니라 당대 제일로 추앙받던 고승들로부터 인가 받은 뒤 남쪽 송광사로 내려가 10년간 주석하며 구름처럼 모여든 후학들을 제접했다. 송광사는 한국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 운동을 펼친 역사의 도량이자 지눌을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이었다.

효봉 스님이 자신의 법호(효봉)와 법명(학눌)을 새로 바꾸고 제2의 정화결사 운동을 펼친 것은 보조국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말한다. 그는 해방 이후 가야총림 방장,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으로 추대돼 오늘날 조계종단의 밑거름이 됐다. 늘 참선수행과 지계, 절약 정신을 일깨운 그는 구산, 고은, 법정을 비롯한 수십 명의 직계 제자들을 두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와 6 · 25 전쟁 등으로 상처받던 수백만 민중들이 의지한 정신적 지주였으며, 현대 한국불교의 새벽 봉우리로서 지금도 후학들을 굽어보고 있다. 1966년 10월 15일(음력 9월 2일) 노환으로 열반할 때까지 그의 평생은 법호인 효봉(새벽봉우리)처럼 오롯하고 청정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가 체험한 '돈오와 보림' … 최상승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

윤기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3800원



이 책은 대구와 서울에 즉심선원(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을 열고 수행하는 저자가 자신의 돈오(頓悟: 단박 깨침) 체험과 오후(悟後: 깨달은 이후의 닦는 바 없이 닦는 공부) 수행에 대해 법문한 내용을 정리한 선(禪)과 마음공부의 지침서다. 갈수록 물질문명에 찌들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구도의 길을 걷는 공부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병에 들면 병을 고치고 일이 생기면 바로잡는 것처럼 고통 역시 없애고 싶어 한다.

이 '한 법'을 깨달으면 인간이 갖는 모든 정신적 고통과 때론 육체적 고통의 일부까지도 단번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으뜸가는 방법이어서 고통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깨달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떤 선사가 말한 것처럼 '도를 알기는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깨달으려고 마음만 낸다면 말이다.

그럼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인가?

저자는 첫째.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일체가 한 법이니 나 역시 개체의 육체에 갇힌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한 법 그 자체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다.

마조스님께서는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은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기댈 곳이 없으면 그대로 꼬리를 내린다. 그래서 진리의 실상을 알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음을 알고 다시는 준동(蠢動)하지 않고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한번 꼬리 내린 생각은 자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에 정착(定着)해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의 열쇠요 자유의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바란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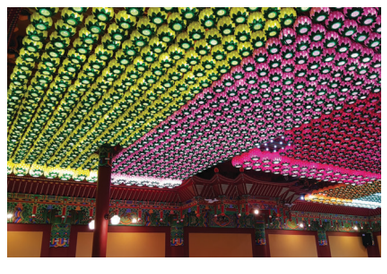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